

시민 참여하는 '상생 경제도시 모범 광주' 만든다

광주형 일자리 공모주 규모·비전

광주시, 14일 투자자 모집·합작법인 설립 틀 협의키로 정부, 공공임대주택...문화·여가·복지시설 등 지원 정태호 수석 "경제사 한 획 되는 사건...국민 대다수 찬성"

이용섭 광주시장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시민, 노동계도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방식과 참여 폭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우선 '노사민정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 시민, 노동계가 명실상부한 합작법인 및 공장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주의 자격을 부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기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다른 지역, 자동차만이 아니라 전자, 반도체 등 다른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투자자 모집, 합작법인 설립, 공장 착공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민주성지 광주는 '상생 경제 도시의 모범'이라는 위상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 중 1680억원 조만간 투자자 모집=시와 현대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의 총자본금은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800억원을 자기자본금으로 하는데, 광주시가 590억원(21%), 현대차가 530억원(19%) 등 40%를 부담하기로 했다. 투자자 모집 대상은 나머지 1680억원이다. 시는 14일 현대차와 실무 협상을 벌여 투자자 모집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상공인, 지역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등에 이어 시민, 노동계에게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지분은 전체의 10%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 "광주형 일자리, 경제사의 한 획"=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경과와 관련, "상반기 내에 법인 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인 것 같다"며 "법인 설립 후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는 일정에 비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지난 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해법이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그야말로 경제사의 한 획이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또 광주형 모델의 타 지역 확산 후보군과 관련해 "군산, 구미, 대구 지

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상반기에는 최소한도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문화시설과 여가시설,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그 부분들은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 모델의 지분 구조 등 장기적 정책의 의문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본 기타큐슈에서 과거 산업들이 쇠락하자 지역을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임금이 20-30% 정도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해 그걸 통해서 도요타 등이 기타큐슈에 들어오게 돼서 성공했다"며 "이처럼 광주형 모델도 지역과 노동계, 기업이 결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확산과 관련, 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지적에 정 수석은 "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윤원석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한전공대 전담조직 구성 한전과 실시 협약 3월 중 마무리

전남도가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3개팀 17명 규모로 이달 내 구성한다. TF는 한전과의 한전공대 입지선정 실시 협약을 앞두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남도·나주시와 함께 한전까지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한전 측과 한전공대 입지 실시협약에 착수한다. 한전과 전남도는 한전공대 입지 제공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시작해 3월 중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실시협약이 마무리되면 TF를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킬 방침이다. 가정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은 최대 4~5개팀 25~30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실시협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교·교과 체계 등을 정리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한다. 마스터플랜은 올해 상반기 중에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협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남도의 한전공대 부지제공 조건과 지원계획 등이 공개될 전망으로 무산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 입지선정 과정에서 변경된 조건을 용역 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착공 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북미정상회담도 이곳에서?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낙점되면서 양국 정상들이 목을 숙소와 회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회담장으로 유력한 국립컨벤션센터(NCC).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회담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연합뉴스

올 한국 부담 주한미군 주둔비 1조380억...전년비 8.2% 인상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 원대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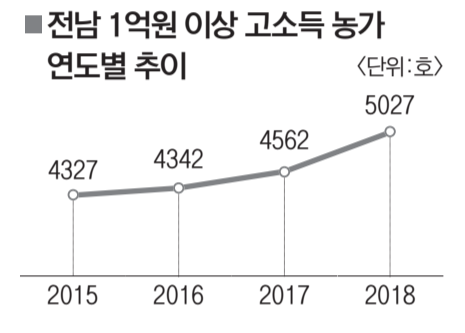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을(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이 가시명되기까지 적잖은 진

통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9차례 협상을 통해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갑자기 '최상부 자담'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을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연합뉴스

전남 역대 부농 5천 농가 돌파 전년비 10.2% 증가...청년·귀농인 20% 차지

전남지역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 5000농가를 돌파했다. 역대 부농 5명 중 1명은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지역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 조사를 한 결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5027농가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보다 465농가(10.2%)가 늘어난 수치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3908농가(77.7%)를 차지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933농가(18.6%), 5억 원 이상 186농가(3.7%)에 달했다. 최고농업경영자로 불릴 만한 농가 소득 10억 원 이상 42농가(0.8%)였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1858농가(37%)로 가장 많았고, 축산 1790농가(35.6%), 채소 720농가(14.3%), 가공·유통 분야 330농가(6.6%), 과수·화훼 329농가(6.5%) 순이었다. 식량작물과 축산·과수·화훼 분야에서 지난해 고소득 농업인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86농가(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1996농가(39.7%)였다. 특히 40대

이하 청년농업인도 945농가(18.8%)나 됐으며, 귀농인 고소득 농가도 282농가(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571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강진 544농가, 해남 522농가, 영광 409농가, 보성 387농가, 나주 371농가 순이었다. 특히 영광은 보리산업 육성을 특화하고, 축산농가 집중 육성 등으로 전년(169농가)대비 증가율이 142%(240농가) 늘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소득 농업인 증가의 주된 이유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재배기법 차별화, 적극적 판로 개척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 꼽힌다. /박정욱 기자 jwpark@



오천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최선규 H.010-3605-5000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랍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제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조선이공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공고

구분	학과	초빙분야	인원	세부자격요건
비정년교원(교육행정교원)	기계과	기계공학	1명	·용접 가능자
	기계디자인과	기계설계	1명	·PLC 가능자
	전기과	전기공학	1명	·10년 이상의 경력력, 대학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중 군사학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건의료행정과	보건행정	1명	·학급단 등의 교관(훈육관) 경력력 있는 사람 ·부사관 필기평가, 면접 지도 가능한 사람	
	보건행정	1명	·의무기록사 자격증 소지자 ·임상경력 3년 이상인자	
계			5명	

1. 채용내용
2. 지원자격
가. 우리대학교 「교육행정교원임용규정」 제2조(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군사학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지원할력이 제한 될 수 있음
3.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2019.02.25(월) ~ 02.27(수) 09:00~17:0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019년 02월 27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밀물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임학처 교무팀(대학본부 1층)
4. 제출서류
가. 교원임용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나. 학력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증명서 첨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중정서에는 담당직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라. 대학·전문대학 전임교원 경력자인 경우
- 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확인서
마. 산업체 경력자인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동일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5.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하나의 초빙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임용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로 확인되거나 신변조사,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다.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명서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라. 학위논문은 제출된 연구실적에 지원자가 지정한 10면까지의 대표실적만 심사하며, 10면 이상 제출한 경우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된 순서로 심사할(지원서는 2권까지만 인정)
- 연구실적목록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로 판단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6. 임용조건
가. 임용직위: 조교수
나. 임용예정: 2019학년도 1학기 4.1차 임용(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담당부서: 조선이공대학교 교무임학처 교무팀
나. 전화번호: (062) 230-8040, 8044
다. 팩스번호: (062) 234-8304
라. 홈페이지: http://www.cst.ac.kr

2019. 02. 11.
조선이공대학교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